

좋은 法과 스승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⑤ 원숭이 왕, 어디를 헤매이나

얼마나 많은 풍파를 헤쳐왔는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가? 그런 얘기는 서유기에 안 나오지만 옛목으로 큰 바다를 건넜으니 그 어려움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아무튼 기적적으로 무사히 원숭이 왕 남섬부주라는 대륙에 이르렀네.

원숭이의 기본 제주가 바로 흉내내기 아니던가? 원숭이 왕 기본 제주에 더해 온갖 제주 다해 사람 흉내내기로, 사람 사는 곳으로 잠입 인간의 말과 예의범절을 배웠네. 원숭이 닮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짝악 퍼졌던가?

그런데 이 남섬부주 사람들 하는 것 봐라! 본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덧없는 것에 골몰하여 온갖 쾌락 추구하고 허영과 거짓이 가득하구나. 에이! 원숭이 세상만도 못하네. 이런 곳에 어찌 죽음을 벗어날 오묘한 도가 있었는가? 실망한 원숭이 왕 또 다시 배를 띄웠구나.

또 큰 바다를 다시 건너니 서우하주라는 대륙이 있구나. 이리 저리 다니다 보니 자태도 수려한 큰 산 있다. 정상에 올라 두리번거리는 데 홀연히 숲 속에서 노래소리 들린다. 가락도 구경지지만 그 속에 담긴 뜻 맑고도 오묘하구나. 우와! 기뻐라! 신선이 여기 계시구나. 숲속으로 달려 들어가 보니 빨강 짙어지고 도끼 든 나무꾼 나무꾼이면 어찌냐?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지. "스승님, 제자 절 받으세요!" 도를 구하는 마음에 가득찬 원숭이 왕 납죽 절을 올렸네.

에엣? 스승님? 나 그냥 나무꾼인데... 얼굴 빨개진 나무꾼 손을 뻗어 줬다. 그렇다면 도의 기상이 가득 찬 그 노래는요? 가까운 곳에 신선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배운 거여. 마음이 괴롭거나 할 때 부르면 참 좋거든. 그래요? 그럼 그 신선은 어디 사는데요? 음, 종자로 가르쳐 주기는 좋아갑지만 절 받은 빛도 없으니 특별히 가르쳐주지.

드디어 원숭이 왕이 '스승 찾아 3만리' (실제로는 3만리가 훨씬 넘지만) 떠나면 여행을 거쳐 스승 계신 동네에 도달하는 대륙이네요. 이 대륙에 오게 되니 알 수 없는 말들도 몇 개 나옵니다. '남섬부주' 나 '서우하주' 나 하는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고대 인도와 불교에서 생각하는 세계의 모습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대방촌산(靈臺方寸山)' 이니 '사월삼성동(斜月三星洞)' 같은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 이름들도 있죠? 그것도 좀 해설해야 할 듯 합니다.

원숭이 왕이 어디를 헤매고 있었나요? 위에 글을 보면 이미 '서우하주' 까지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군요. 원숭이 왕이 태어난 곳은 '동승신주'. 거기서 일단 '남섬부주' 로 갔다가 다시 '서우하주' 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동승신주, 남섬부주 등의 지명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히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4개의 큰 대륙으로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아니, 이젠 불교 고유의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아무튼 네 개의 대륙은 그 놓인 위치에 따라 '동승신주(東勝神洲, 또는 東勝身洲)', '서우하주(西牛賀洲)', '남섬부주(南瞻部洲)', '북구로주(北俱盧洲)' 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개의 대륙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옛날 인도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세계의 중심에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아래쪽에 바람 바퀴가 있고, 그 위로 물 바퀴, 쇠 바퀴가 겹쳐 있다 하죠. 그 쇠 바퀴 위로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둘러 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산과 산 사이에 바다가 있는 셈이죠. 그 여덟 바다의 가장 바깥쪽 바다의 사방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 개의 대륙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수미산의 허리 사방에 사천왕(四天王)이 살고 있으며, 꼭대기에는 제석천(釋天)의 33천(天) 궁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계라고 보는 것이 고대 인도인의 세계관이었고, 그것이 불교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 나?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의 세계가 천개 모이면 하나의 소천세계(小千世界)가 되고, 이 소천세계 천개가 모이면 하나의 중천세계(中千世界)가 되며, 중천세계 천개가 모이면 하나의 대천세계(大千世界)가 됩니다. 하나의 대천세계 속에는 소천, 중천, 대천이라는 세 개의 천(千) 세계가 있다고 해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 부르죠. 그러면 이 삼천대천세계에는 과연 몇 개의 세계가 있는 셈일까요?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또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하나만 있는 나?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한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천문과학의 우주론을 뺀다는 상상력, 인도인의 무한한 상상력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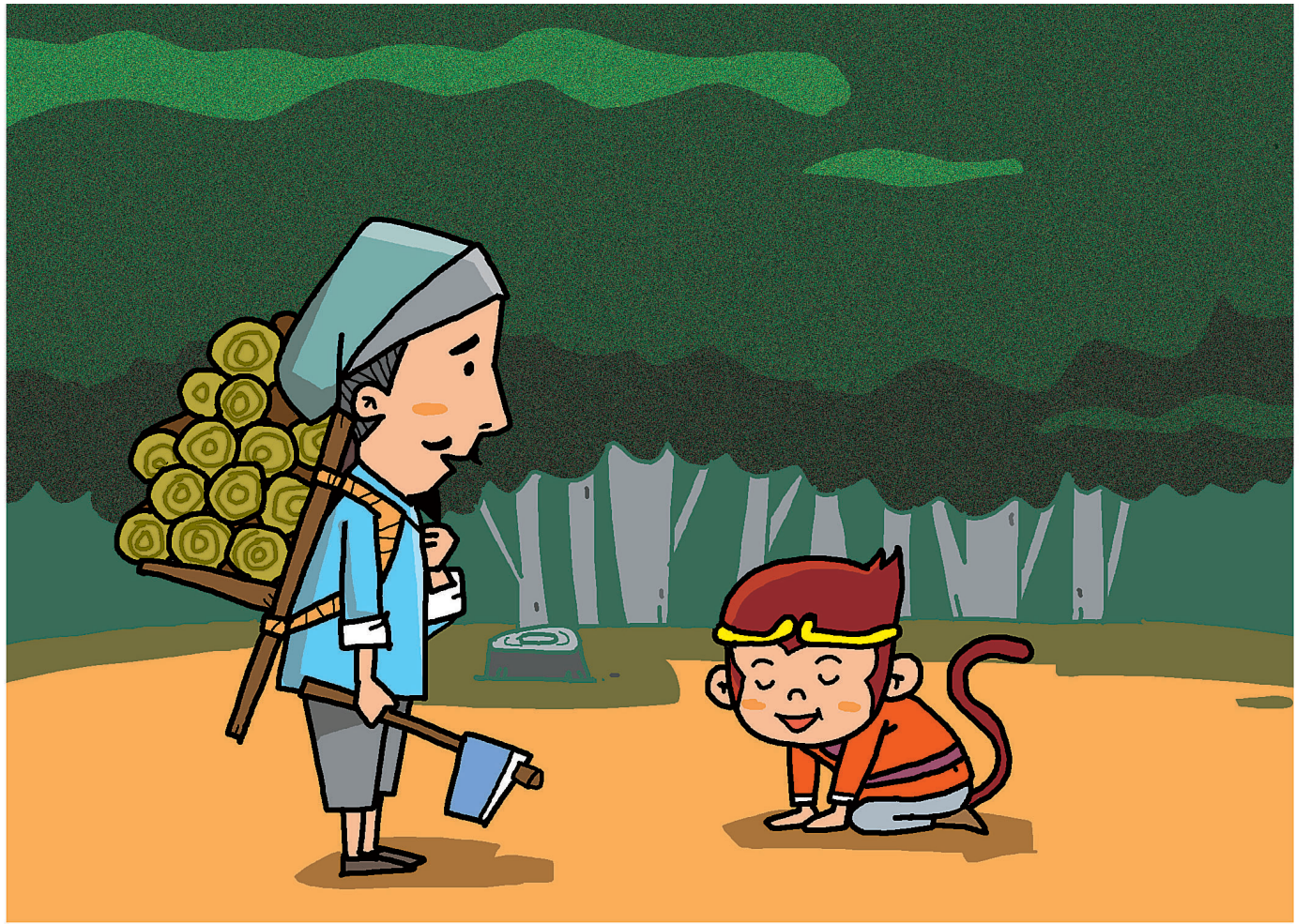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섬부주부터 서우하주까지 망망대해 다니며 '스승 찾기'

<서유기> 속 생소한 지명은 인도 및 불교 세계관에 근거 남섬부주는 사바세계를 의미 "참고 견뎌야 진리를 이룬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먼저 연상되시는지요. 아마도 불교, 요가 등이 먼저 떠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인도는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방면에 관련된 것들이 연상됩니다. 아마도 종교로는 불교를 통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보급된 요가를 통해 잘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 보급된 요가는 주로 이상한 포즈를 통해 육체적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요가의 한 부분이며, 또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요가의 궁극은 그런 기본적인 수련을 거쳐 결국 신과의 합일, 또는 완전한 자아의 실현을 체험하는 명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인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주로 이러한 것들이어서 인도는 당연히 종교적이고 금욕적이며, 명상적인 방면에 치중하는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다. 그러나 인도는 그렇게 하나의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 지인이 인도에 다녀와서 저에게 선물 2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염주알 하나 하나가 해골인 '해골 염주'였습니다. 그걸 돌리면 자연스럽게 생(生)의 무상을 생각하게 마련이죠.

다른 하나는 '카마 수트라 수투파'의 기념 우편 엽서였습니다. '카마 수트라'를 번역하면 '애욕의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애욕의 경에 나오는 성행위의 여러 체위를 묘사한 조각들로 사면을 장식한 탑. 그것이 바로 '카마 수트라 수투파'입니다. 현대의 포르노그라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사면을 꼭 채우고 있는 답입니다.

해골 염주와 '카마수트라 수투파', 얼마나 대조적 인가요? 그리고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인도에는 함께 공존합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해탈(解脫)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기는 했지만, 그 밖에도 사회적 의무와 애욕의 추구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최고 계급이었던 브라만들은 인생을 네 단계로 구분해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스승의 지도를 받아 규범과 의무를 배우는 시기, 어른이 되어 자손을 두어 가정생활을 하는 시기, 일선에서 물러나 숲에 머물면서 청정한 생활을 하는 시기, 하나의 숲에 머무는 것도 버리고 떠돌며 수행하는 시기. 그 마지막 시기에 추구하는 것이 완전한 해탈이라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시기에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카마', 즉 애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창녀는 상당한 자부심과 권위의식을 지녔었다는 설(說)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자신들

이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제 셋길로 갔던 이야기가 본래 줄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원숭이 왕은 우선은 큰 바다를 건너 '남섬부주'로 갔네요. '남섬부주'는 어떤 땅이나?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섬부주는 음역이기에 어떤 경전에서는 염부제(閻浮提)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범어로는 'jambu-dvīpa'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통틀어 사바세계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시죠? 절에서 축원할 때 "사바세계 남섬부주 해동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간 세상의 총칭인 사바세계의 뜻은 '참고 견뎌야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참고 견뎌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좌절되면 울고불고 원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원래 참고 견뎌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담담해져서 큰 절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세상은 본디 괴로운거야"하면서 울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저의 좌우명을 소개해 드리자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 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욱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부다보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집합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